

# 파격·자유분방 승려화가 '팔대산인'의 삶과 예술



팔대산인  
저우스펀 지음/서은숙 옮김  
창해 펴냄/1만9천원

명말 청초를 산 미치광이 승려화가, 본명은 주잠, 호는 '팔대산인(八大山人, 1625~1705)'이다. 하지만 그의 진면목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오히려 중국내에서는 더 그렇다. 중국 모대학의 학력경시대회 문제중에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팔대산인은 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덟사람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다수 학생이 답을 틀렸다고 한다. 그렇지만 중국 고대회화를 전공한 미국의 어느 전문가에게 중국 화가중 누구 그림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주저없이 "팔대산인의 그림입니다"라고 답했다는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 그는 역대 중국 최고의 작가중 하나다.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새(위)와 '목죽 화첩'. '목죽'은 굵은 붓으로 힘차게 찍어 대나무의 골은 기운을 표현했다.

팔대산인은 광기의 화가라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반센트 반 고흐와 종종 비교된다. 그러나 광기의 이유까지 같지는 않다. 고흐의 광기는 생명을 불태운 결과이자 생존에 대한 깊은 체험에서 비롯된 필연이었다. 하지만 팔대산인은 명나라 왕족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나라가 망하는 거대한 변란으로 인해 미치기에 이르렀고, 결국 선禪과 그림은 그에게 일종의 도피처였다. 중국 문인화의 거두로 평가받는 팔대산인은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정작 남긴 글이 너무 적어 그의 삶은 대부분 '수수께끼'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인 화가 저우스펀이 지은 <팔대산인>은 비록 소설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불운한 시대의 한 고독한 천재화가였던 팔대산인에 대해 궁금했던 이들에게 반가운 책이 될 것 같다.

지은이는 팔대산인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 결과에 따라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버무려 홀 흐르듯 이야기를 전개

## 중국 문인화 꽃피운 최대 거장 명나라 왕족으로 살다가 패망 후 저잣거리로 내몰린 불운한 삶 선기 어린 그림으로 승화

시켜 나간다. 찬란한 왕족이 패망 후 도망쳐 나와 저잣거리에서 놀림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미치광이 화가로 세상을 붓칠해 가는 생애를 박진감 있게 그렸다.

국내 독자들에겐 약간 생소할지 모르는 팔대산인은 명나라 말 4대 승려화가중의 하나로 꼽힌다. 또한 중국 문인화의 거두로 칭송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팔대산인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파초, 괴석, 연꽃, 가리기 등 식물과 동물은 물론 사람의 특징을 정확히 잡아내 간략하게 그리는 '발목화조화' 기법의 중국 시조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가 개척한 예술론은 현대 중국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줬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런 점들이 바로 전세계 수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그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승려였던 그의 그림에서는 선기가 묻어나는 동시에 성남, 슬픔, 정그림 등 인간의 다양한 표정이 들어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함축적이고 때론 모호한 그의 말년 그림은 항상 그림밖에 도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하늘을 노려보는 새" "기이한 형상의 바위" "마르고 시든 연꽃" "눈을 부릅뜬 물고기" "두눈이 새까만 고양이" 등은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없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좋아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그는 술은 두 되를 못 마실 주량이었지만 술 마시길 좋아했다. 또한 취하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술기를 자주했으며, 취중이지만 단박에 그림을 그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주사기도 부렸다. 하지만 세도가가 그림을 그려달라며 비단 한 필을 가져오면 그 비단으로 버선을 만들겠다고 거절했다. 이 모습은 조선시대 화가인 오윤 장승업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수묵담채로 그린 '거상유어도'. 여백의 미가 강해 선기가 느껴진다.

이 책이 한 인간의 삶과 작품세계를 다뤘음에도 전기가 아닌 소설로 쓰여진 것은 별로 남아있지 않은 빈약한 자료에 있다. 그러다보니 그에 대한 '진실'과 '소문'이 끊이지 않아 진실이 많이 가려진 것이 사실이다. 지은이는 바로 그의 그림과 비평의 글들을 발췌하고 사료에 근거해 팔대산인을 소설로 복원해 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책 곳곳에 그의 그림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으나 이야기의 전개와 관련된 그림들은 정작 빠져 있어 글을 읽는 맥이 끊겨 버린다는 점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춤 테라피  
가브리엘 로스 지음 | 박선영 옮김  
랜덤하우스 중앙 펴냄 | 1만5천원

춤을 이용한 대체 치료, '춤 테라피'이다. 춤은 원시사회에서부터 인류와 함께 해왔다. 특히 우리 민족은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고 <삼국지위지동이전>에 나와 있을 정도로 춤과 연관이 많다. 그 춤은 회노애락과 같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춤(출동)으로 표출해 마음의 정화나 무아지경을 느끼는 문화가 전승됐다.

최근 출간된 <춤 테라피>는 기본적으로 몸의 메카니즘과 우주와 몸의 관계, 사회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 심리적 자아와 참 자아의 관계, 감정의 물결이라 할 수 있는 몸짓과 정신의 관계, 춤을 통한 사회와의 소통과 치료 효과를 설명했다. 춤치료에서의 춤은 행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추는 춤도 아니다. 오로지 치료 목적이 크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춤 치료는 다섯 가지의 리듬을 바탕으로 자신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움직임과 춤으로 통합하고 본래의 자기(Self)를 만나는 과정이다. 지은이는 우주와 개인의 몸에 흐르는 파동을 다섯가지 리듬으로 파악한다. 흐름(flowing)은 자신을 발견하

## 춤추며 몸과 영혼을 하나로

는 여성성의 리듬, 스타카토(staccato)는 자신을 정의하는 남성성의 리듬, 혼돈(chaos)은 여성성과 남성성이 통합된 흐름, 영혼의 노래(lyrical)는 무아경과 자아실현의 리듬, 침묵의 춤(silence)은 평온을 찾는 새로운 시작이다.

지은이가 춤을 마음의 치유와 연결시킨 것은 개인사에서 비롯됐다. 발레리나의 꿈을 키우며 영적 충만함에 빠져 경건한 수행자처럼 살고 싶었던 지은이는 대학때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낙태를 경험하고 죄의식에 빠진다. 이후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춤에 매진했지만 무릎이 상해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로부터 그는 원래 하나였던 몸과 영혼이 사회의 도그마와 가치관에 의해 분리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육체를 학대하는 무용 대신 몸과 영혼이 일치될 느끼는 무아지경의 상태를 추구한다.

지은이 가브리엘 로스는 무대감독이자 춤 치료 연구자이며 음반기획자로, 이 책은 그가 자신의 경험과 작업을 통해 체계화한 다섯 가지의 리듬이 어떤 원형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리듬이 삶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리듬과 함께 춤을 추면서 무엇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나는 내 몸을 싫어해, 나는 원래 몸이 둔해, 리듬감이 없어, 춤출만큼 기분이 좋지 않아, 나는 춤출 공간이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춤을 추라고, 그러면 몸과 영혼이 일치되는 명상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권유하는 책이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동작치료, 영화치료 등 최근 유행의 한 흐름이기도 하다.

그런점에서 이 책은 춤을 단지 예술가만 즐기는 무대예술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레크리에이션과 치료 도구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든다.

최유희(인천시립무용단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평상, 벤치탁자

◆ 평상 1500×820×400(mm) 가격:150,000 할인가:130,000  
1800×1830×480(mm) 가격:229,000 할인가:199,000

◆ 벤치탁자 set 1500×1790×750(mm) 가격:420,000 할인가:370,000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에 있고 두꺼워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색이 죽어도 부드럽고 또 온후 비로 얻을 수 있는 제품. (목상, 기둥, 유압, 특수목재, 합판, 광택 등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제품.)

지구산업 TEL:(063) 323-3010-1  
FAX:(063) 323-3012  
계좌번호:(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지구산업 책임호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화원 신사남역점 / 서가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한 문재현 선사님  
억전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화법입니다!

바로보인 전등목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백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권

바로보인 선문열송 (30권 중 6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칠푼 희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이트영강판  
슬라브, 사철, 교외,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공공사)

서울: 011-379-0667  
강원도: 010-3044-9708  
경기도: 019-690-4018  
충청도: 011-327-7697  
경상도: 010-9697-8580  
전라도: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블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터트린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특 043-647-2378, 011-467-1472